

일 주 문

약사신앙 사진공모전 개최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5월 31일까지 동아시아 약사신앙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053)985-4405

제1차 범어사 성지순례 봉행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3월 25일 문경 봉암사로 제 1차 범어사 성지 순례를 봉행한다. (051)508-3122

보살계 산림 입재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4월 14일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산림에 입재한다. (055)382-7182

산수유꽃 축제 개최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3월 30일 산수유꽃 축제와 함께 하는 스프링 여행을 개최한다. (061)782-7600

제1차 학업 원만성취 관음기도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3월 11일 봉은사 범방루에서 제1차 학업 원만성취 관음기도에 입재한다.

월호 스님 초청 특별강좌 개설
박경준 동국대 평생교육원 원장은 3월 13일부터 '행복선원장 월호스님 초청 특별강좌'를 개설한다.

국제포교사회 포교사 고시 시행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3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국제포교사고시를 실시한다. (02)722-2206

'붓다와 여성' 강연
전재성 한국불교여성연합회장은 종교와 젠더연구소(소장 옥복연)의 초청으로 3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강연한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25대 함중한 회장 선임

함중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2월 26일 청소년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서 열린 2013년도 정기총회에서, 제25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4년이다. 함중한 신임회장(69)은 강원도지사와 제12, 13, 15대 국회의원을 지낸바 있다. 현재 용석장학재단 이사장, 대한건기연맹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레크리에이션 법회 활성화에 최선”

불레협 제13대 회장 선출된 자재암 주지 헤만 스님

“어린 시절 체험은 평생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불교의 미래와 희망이 어린이, 청소년에게 있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불교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한 축인 불교 레크리에이션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체계 중요한 소임을 맡겨 준 이상 천직으로 생각하고 불교레크리에이션 법회 및 전문지도자 양성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제 13대 회장에 선출된 헤만 스님(동두천 자재암 주지)은 선출 소감을 이 같이 밝히고 말머리를 풀었다.

헤만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한국 불교의 당면과제이지만 그 여건은 매우 열악함을 꼬집었다. 조계종 포교원과 유관 불교 청소년 단체들이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변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일부 사찰들은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해 무던히 노력을 하지만 대부분은 운영의 어려움과 제약 때문에 소홀하다”며 “어린이·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및 어린이·초·중·고등부 계층에 맞는 계층별 지도자의



계층별 지도자 부재 등 청소년 포교 과제 산적 전문가 양성 위해 노력 지역 법회 네트워크 추진

부재로 이들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행 과제에 대해 헤만 스님은 어린이·청소년들이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스님은 “먼저 대중들의 마음을 열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그 방법이 프로그램이며, 진행은 지도자의 몫”이라며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도자 양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헤만 스님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도자 모임 활성화와 각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스님은 “어려운 불교 교리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해 계층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알아 한다”며 “이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지도자 모임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 각 사찰, 청소년단체, 신도단체 함께 연대하여 지역별 청소년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하여 계층별·포괄적 포교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불자들에게 어린이, 청소년들을 자기 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올바른 전법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만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배운 아이들의 건전한 정신과 문화가 곧 한구 사회의 미래 모습”이라며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애민하듯이 불자들도 어린이·청소년들을 항상 바른 전법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불레협은 제12, 13대 회장 이·취임 법회를 오는 3월 24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봉행한다. 신종일 기자 mol79@hyunbul.com

“禪의 위대함 알리고 싶었죠”

중국어판 순례기 <禪門之路> 펴낸 대원사 주지 법지 스님

부산 대원사 주지 법지 스님은 중국 110여 개 사찰을 순례한 4년 6개월의 기록을 <선문지료>로 펴냈다.

“선사상을 총망라하고 싶다는 생각에 2007년 중국으로 갔어요. 난징(南京)대에서 수학하던 2007년 11월, 동안거를 위해 남화선사를 찾았다가 중국에 산재한 선종의 발자취를 모두 순례해보겠다고 발심하고 110여 곳의 사찰을 순례한 뒤, 이를 중국어판 책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다. 하루 18시간 혼자 운전하며 졸음과 싸우거나 하면 술하게 약전 후에 시달렸다. 인터넷 정보로 그린 지도가 실제와 달라 길을 잃고 헤맨 적도 많았다. 장시(江西), 후난(湖南) 등 성 접경지의 심산유곡 사찰 경내에 어렵사리 발을 들여 놓은 뒤에도 선승의 흔적을 돌아보려면 가시덤불을 헤치며 토굴 등을 찾아 헤매야 했다.



심산유곡 토굴 등 찾아 직접 사진 3000장 기록 4년 6개월간 110여 곳 순례

스님의 선맥(禪脈) 답사는 사찰의 역사, 선승의 행적, 문화유적 등을 빼곡히 기록한 수첩 수십 권과 직접 찍은 사진 3천여 장으

로 남았다. 이를 토대로 난징대 철학과의 상롱(尚榮) 교수 등 중국의 종교·철학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선문지료>를 펴낸 것이다.

법지 스님은 이렇게 순례를 통해 학교에서 선사상을 연구한 결과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고 한다.

스님은 “한국의 선종을 중국의 아류로 알잡아보는 중국 불교계에 한국의 선(禪)이 살아 있다는 점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중국이 공산 국가이다 보니 당국 의도에 맞게 문화에 초점을 둔 점은 매우 아쉬웠다”고 전했다. 스님은 앞으로 2년간 20여 곳의 한국 선종 사찰을 소개할 계획이다.

법지 스님은 18세 때인 1980년 3월 부산 해조원(범어사 말사)에서 자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불국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뒤 동국대 선학과에서 ‘무아(無我)의 삼전성(三轉性)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2002년 봄 난징대로 유학을 떠나 2011년 5월 ‘육조단경(六祖壇經) 사상 및 연변(演變)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도 받았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일면 스님, ‘한국을 빛낸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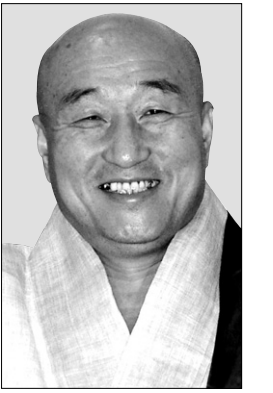
장기기증 활성화 공로 대상 수상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2013 한국을 빛낸 사람들 시상식’에서 생명나눔실천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일면 스님은 한국언론인연합회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등의 주관으로 2월 2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장기기증 홍보와 기증 활성화에 앞장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면 스님은 “지난해 장기기증자가 처음으로 400명을 돌파하고 희망등록자 수도 100만 명을 넘은 것을 보면서 장기기증 문화가 퍼지고 있음을 느끼지만 아직도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다”며 “앞으로 더욱 장기기증 활성화에 매진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을 빛낸 사람들 시상식’은 종교·정치·사회·경제·문화·국방·의학·환경·예술 등 일반 공직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의 공로 치하하고 표창해 국내외에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성과를 거두고자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나은 기자



‘불교상용의례’ 지도교수 연수



불교상용의례 보급을 위한 지도교수들의 탁마 열기가 뜨겁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2월 20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제2차 사찰승가대학 필수교과목 ‘불교상용의례’ 지도교수 연수를 실시했다.

지도교수 연수에는 영불교육지도위원장 동주 스님과 위원회암 스님, 인묵 스님, 법안 스님 등이 지도를 맡았으며, 각 승가대학에서 추천한 영불지도교수나 집전 스님들이 강의를 들었다.

지도교수 연수의 내용으로는 사십구재, 상용영반 등 각종 제의식과 가정불공의례는 물론 영불교육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도 이론과 실수를 병행해 진행됐다.

교육원은 “지난해부터 영불교육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영불지도교수를 선발하고 연수를 거친 후, 각급 교육기관에 종단에서 결정한 한글 반의심경과 예불문을 각급 교육기관에 직접 지도해왔다”며 “지도교수의 지도와 학인들의 교육을 안정하고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포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교상용의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통화불교 건강원

대반열반경 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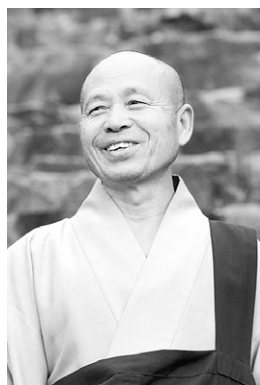
원조 각성 강백 큰스님 직강

40권. 북량(北凉) 시대(A.D. 414~421) 번역. [역] 담무참(曇無讖)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여래의 법신은 상주 불변하는 것이며,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는 대승 사상의 정수가 들어 있는 경으로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각성큰스님께서는 이번 열반경 강의가 일생 마지막 마무리 한다는 소신의 뜻이 담겨져 있어 더욱 귀한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강좌를 신청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강좌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 특 전 ① 통화불교 건강원 수료증 ② 건강원 연구회원 자격 부여
■ 제출서류_ 수행이력서, 반명함판사진 1장
■ 접수처_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0-26번지 좋은절
■ 기간_ 4년



강의일시 | 2013년 3월 19일(화) ~
강의시간 | 매일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
강의장소 | 동국대학교 학명 세미나실
수강료 | 한학기 6개월 (스님 30만원, 재가자 50만원)

모집 | 비구, 비구니, 재가자 선착순
접수기간 | 2013년 3월 11일 ~ 3월 19일(화) 까지
입금계좌 | 국민은행 390401-04-043930 (예금주: 통화불교건강원 최재동)
문의 | 010-4242-7070 (변경) 010-5497-8018 (용화) 011-520-9350 (도행)

주최 | 동국대학교 정각원 주관 | 통화불교 건강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3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Table with 2 columns: Course Name and Description. Courses include Basic Course (3 months), Intermediate Course (3 months), Liturgy Class (1 year), and Special Liturgy Class (1 year).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4월 중

◆개강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